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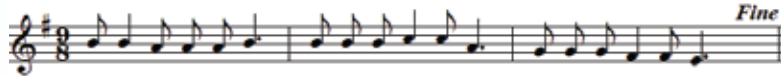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29-31)



제1독서 1열왕 19,9-11-13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화답송 시편 85(84),9-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로마 9,1-5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4,22-33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성가안내

- 입당성가: [27] 이 세상 더없이
- 봉헌성가: [340] 봉헌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94] 성체 안에 계신 예수
- 파견성가: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제1독서

열왕기상권
19,9,11-13,17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렘에⁹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¹¹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¹²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¹³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제2독서

로마서
9,1-5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형제 여러분,¹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²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³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⁵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복음

마태오
14,22-33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²²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²³ 군중을 돌려보낸 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²⁴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²⁵ 예수님께서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²⁶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²⁷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²⁸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²⁹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³⁰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³¹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³²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³³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묵상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산 호렘 동굴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그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길이 지난 다음에야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는 엘리야는 부드러운 미풍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에 맞서 배를 몰고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신적 현존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는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영광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믿게 할 요란한 표징과 기적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역경 중에 헤맬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존재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침묵 중에 믿고 기다릴 때,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잔잔한 미풍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감싸 안고 위로해 주십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에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룰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Q 성모 마리아를 왜 공경할까?

가톨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가톨릭은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구원의 협조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공경하는 것이지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행위인 흠숭은 하느님께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께는 공경을 드린다고 표현해야 한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말을 듣는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낳아 기르셨다. 성모님은 평생 동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겪으셨고,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도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루카 2,35) 고통을 겪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다. 이와 같이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모신다.” (교회헌장 53항)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성모님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 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씀을 남기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성모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기도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셨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공경해 오고 있다.

8월 15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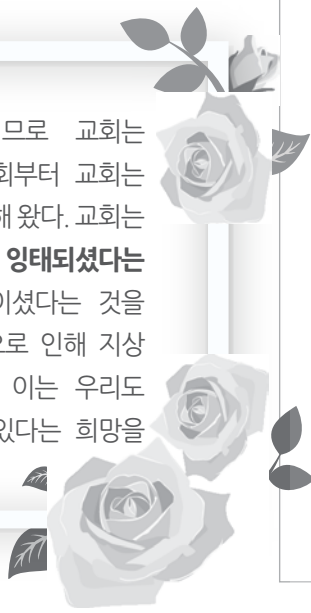


귀도 레니, 성모 승천(Assumption of the Virgin, 1580)

감사송 <영광스러운 마리아의 승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넷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성자)의 어머니이므로 교회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한다. 초대 교회부터 교회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해 왔다. 교회는 성모님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기 위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평생 동정**이셨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은총으로 인해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셨다(승천)**고 믿는다. 이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낸다.



CYO Summer Camp



CYO held its annual Summer Camp at Prince Williams Park on July 27th to 30th. Campers included rising freshmen to Graduated Seniors. It was a weekend filled with lots of games, praise and bonding with fellow CYO students. It was great seeing lots of new faces and hopefully we see you all next year!

Daniel Kim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s for August 2017 - For artists

The arts give expression to the beauty of the faith and proclaim the Gospel message of the grandeur of god's creation.

When we admire a work of art or a marvel of nature, we discover how everything speaks to us of him and of his love. That artist of our time, through their creativity, may help us discover the beauty of creation.

Pope Francis



<https://www.youtube.com/watch?v=fgpNQBrLgM>
The Pope Video is a global initiative developed by the Pope World Prayer Network (Apostleship of Prayer) to assist in the dissemination of monthly intentions of the Holy Father related to the challenges facing humanity.

Announcement

- #### 2017-2018 Sunday School Registration Services
- When: Sundays, Aug. 6th-Aug. 27th (after 10am & 11:40am Mass)
 - Where: Hasang Building Lobby
 - Fee: 1 child · family \$80 / 2 children · family \$150
3 children & more · family \$200 (checks or cash)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7



"Come and see"
- John 1:39

Workshops are led by Korean priests and sisters in both Korean and English to help you grow a deeper faith through a proper understanding of vocations.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Saturday, Sep 9, 2017

St. Paul Chung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Questions: Vocations Committee 703-403-1185

- 2:30pm - 2:45pm Registration
 - 3:00pm - 6:00pm Sessions
 - 6:00pm - 7:00pm Dinner
 - 7:30pm Vigil Mass
- This event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Arlington diocesan organizations:
- Office of Vocations
 -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
 - St. Paul Chung



2017-2018년도
사목 보고회

2017 - 2018년도 사목 보고회가 지난 8월 6일(일) 오후 1시에 성당에서 열렸다. 사도 임원 및 소공동체 봉사자, 단체장 등 본당 내 여러 사도직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목 보고회에서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페루 뿌갈과 선교단의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과 관련해 성당 차원은 물론이고 모든 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과 연도시에 성인 호칭 기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결정 사항을 전 신자들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회는 각 부서별 활동 보고와 계획 발표, 회계 결산과 예산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구역임원 교육

8월 구역임원 교육이 지난 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41명의 구역봉사자와 구역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백인현 주임 신부는 “물위를 걸으신 예수님”(마태 14,22-33)을 주제로 한 복음 묵상에서 “굳은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전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거나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것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어 2017-2018년 구역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9월에 계획된 성경·교리 퀴즈대회의 일정을 안내하고 구역부에서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7 동중부
한인성소대회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7



“와서 보시오”

- 요한 1:39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보다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한인 성직자와 수도자를 모시고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하는 워크샵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Saturday, Sep 9, 2017

성 정 바오로 성당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문의: 성소후원회 703-403-1185

- 2:30pm - 2:45pm Registration (등록)
- 3:00pm - 6:00pm Sessions (주제 발표)
- 6:00pm - 7:00pm Dinner (저녁 식사)
- 7:30pm Vigil Mass (토요일 저녁 미사)

이 행사는 다음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 워싱턴 교구 성소국 (Office of Vocations)
 • 워싱턴 교구 다문화국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
 •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Fr. Inhyun Paik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



Fr. WonGyeong Seong
성원경 대건안드레아 신부



Fr. J.D. Jaffe
제미 신부



Fr. Augustine Baek
백운택 신부



Sr. Theresa Lee
이 데레사 수녀



Fr. Martino Choi
최 마르티노 신부



Sr. Jemma Hong
홍 겐마 수녀



Fr. Matthias Kim
김명수 신부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8월 15일(화)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미사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오전 10시, 오후 8시

2 단체부 회의

- 일시: 8월 13일(일) 오전 11:40 (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8월 13일(일) 오후 1시 (B-3,4)

4 오세완 신부님 초청 성모 신심 특강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 교우들을 대상으로 성모신심 특강이 열립니다.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하는 이번 특강은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며,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강 둘째 날 미사에서는 스키펠라와 초 봉헌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교우 누구나 봉헌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사: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오마하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
- 첫째날: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 역할
- 둘째날: 7시 30분 미사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
- 일시: 8월 16일(수), 8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성 정바오로 성당
- 주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5 제76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 종합 교리: 8월 22일(화) / 8월 23일(수) 오후 8시 하상관
- 찰고: 8월 24일(목) 오후 8시 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8월 25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8월 27일(일) 오전 11:30 (A-1,2)
- 문의: 유제운 요셉 선교부장 (703) 628-9314

6 제77차 예비자 모집

- 접수: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선교부 테이블, 친교실)
- 문의: 사무실 (703) 968-3010,
유제운 요셉 선교부장 (703) 628-9314
- 입교식: 9월 3일(일)

7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8월 27일까지 주일 오전 10시, 11시 40분 미사 전·후(하상관 로비)
- 등록비: 한 자녀 \$80 / 두 자녀 \$150 /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 보일 (703) 371-3589

8 주일학교(CCD) 보조교사 모집

-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보조교사 약간 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주일학교 또는 성당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13일(일)	연중 제19주일	단체장회의(오전 11:4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서 통독반(오전 11:50, B-1,2)
14일(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5일(화)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오전 10시, 오후 8시, 성당)
16일(수)	연중 제19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100주년 기념 성모신심 특강(오후 7:30, 성당)
17일(목)	연중 제19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00주년 기념 성모신심 특강(오후 7:30, 성당)
18일(금)	연중 제19주간	사도임원회의(오후 8시, B-1,2)
19일(토)	연중 제19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소후원회 모임(오후 12시, 친교실)
20일(일)	연중 제20주일	안나회(오전 11:30, A-1,2,3,4), 하상회(오전 11:30, B-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B-4,5), 베드로회 정기모임(오후 1시, B-1), 봉사부(안전, 안보) 세미나(오전 11:30, B-1,2), 성서 통독반(오전 11:50, B-1,2)

9 2017 - 2018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2017 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등록: 9월 3일까지 / 11:40 미사 후 하상관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
- 문의: 이정열 교장 (571) 215-0479

10 2017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 - 2017년 12월 3일
- 등록: 2017년 8월 20일 - 9월 3일까지(8시, 10시 미사후, 친교실)
- 수강과목: 컴퓨터 기초, 컴퓨터 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 고급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동양화반(수묵화), 미술수채화, 아크릴), 시민권 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회화), 수지요법(초급, 중급), 합창교실, 한국무용 (초급, 중급), 장구반(초급, 중급), 키보드교실(Key Board), 기타(Guitar) 교실 (초급, 중급), 스트레칭요가, 라인댄스
- 개강일: 2017년 9월 5일(화) 오전 9:20
- 대상: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50 (점심제공)
- 문의: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 217-2775

11 하상 성인학교 봉사자 모집

- 하상 성인학교에서 점심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 (703) 968-3010,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 217-2775

12 본당 봉사부 지침(안보, 안전) 관련 세미나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허진 (703) 376-1372

13 신입 본당 봉사부원 모집

- 접수: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K of C 테이블)
- 문의: 허진 (703) 376-1372

14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B-3,4)

15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A-1,2,3,4)

1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1시 (B-3,4)

17 베드로회 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1시 (A-1,2)

18 유아세례

- 일시: 8월 27일(일) 오후 3시, 성당
- 신청: 8월 2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19주간: 민수 6-10 / 마르코 6장

* 여름 휴가중 *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8월 17일(목) 오후 5:00-6:00
8월 18일(금) 오후 8:00-9:00
8월 20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다큐멘터리 평화의 바람: 서울 가톨릭 대학교 신학과 4학년생들의 백두산 여행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8월 6일 (연중 제18주일)

주일헌금	\$ 7,513.00
교무금	\$ 9,930.00
교무금(신용카드)	\$ 5,52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2,96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준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차(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영식(토마스),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김영은 씨 자: **김지현(토마스 아퀴나스)**
◆ 이완열 씨 녀: **이재은(아네스)**

- 일시: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12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리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광고 접수중!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호현 (요셉)